

주간

주요 베트남비즈니스 정보

Contents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 한국진출기업 동향
-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 ◆ 베트남기업 동향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III. 베트남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 프로젝트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한국진출기업 동향

- ▶ 광림, 베트남 기업과 파트너십 계약 소식에 이틀째 '↑'
- ▶ 허창수 GS 회장 “베트남, 동남아 진출 교두보 최적지”... 중기 해외판로 지원도 당부
- ▶ 서원인텍, 베트남 공장 생산비중↑ ...재무구조도 ‘안정적’ - 현대증권
- ▶ 동부화재 PTI-신한은행, 베트남 방카사업 공동추진
- ▶ 롯데마트, 베트남에 11호점 ‘컨터점’ 오픈
- ▶ 금호아시아나그룹, 베트남 대학생 장학금 · 한국 유학기회 제공
- ▶ ‘TPP 수혜’ 베트남서 날개 단 한세실업... 수출 다변화 전략도 '속도'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 ▶ 미국 기업, 베트남 섬유 산업에 원사 공급 희망
- ▶ 베트남 기본급, 외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과 큰 차이
- ▶ 베트남 유럽의 신발 수출 세계 제3위로 부상

◆ 베트남기업 동향

- ▶ 베트남 비엔 호아에 수입 목재 유통 센터 오픈, 국내 최초
- ▶ 국영 기업의 주식 회사화, 올해 대상 기업 289곳 중 불과 94개뿐
- ▶ 가죽 신발 기업 수출 증가
- ▶ Vietcombank 중소기업을 위한 단기 대출 우대 금리 연 5.5%
- ▶ 베트남 투자 개발 은행(BIDV) 봉제 기업들에 20억 달러 대출 약속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 ▶ 베트남 대기 오염 방지 계획 방안 수립, 천연 자원 환경성
- ▶ 빈증 성 환상 도로 일부 개통, 호치민과 연결
- ▶ 베트남 일부 국유 기업은 TPP 대상에서 제외 석탄, 원유 수출세 유지
- ▶ 2014년 두유 소비량, 베트남 세계 제3위
- ▶ TPP 실현은 최소 1년 반~2년 후, 베트남은 가장 유연한 조건



대한상공회의소

- ▶ TPP 의 비준 절차 베트남은 빨라도 2016 년 6 월 국회에서
- ▶ 수유 중 여성 근로자에 하루 60 분 휴식 시간 제공 새 시행령
- ▶ 무역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 ▶ VAMC(베트남 자산관리공사) 9 개월간 부실채권 91 조 동 매입
- ▶ 하노이 부동산 가격 계속 오를 듯
- ▶ 팡닌 성 산업단지, 경제구 기업 투자유치 촉진

III. 베트남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 프로젝트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한국진출기업 동향

광림, 베트남 기업과 파트너십 계약 소식에 이틀째 ‘↑’

- 광림이 베트남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이틀째 급등하고 있음. 12일 오전 9시 20분 현재 광림은 전거래일 대비 23.08%(945 원) 오른 5040 원에 거래되고 있음
- 크레인 및 특장차 제조업체인 광림은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해 지난 7일 베트남의 글로벌기업인 피코(FICO)그룹의 관계사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피코서비스엔트레이딩은 2007년에 베트남의 국영기업인 비나코민(베트남 천연자원 개발공사)이 최대주주로 투자해 출범한 기업임
- 현재 베트남 건설부 산하에서 건설자재의 생산과 판매, 각종 사회간접자본 부분 등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글로벌기업인 피코그룹의 관계사로 성장한 회사임
- 광림은 이번 피코와의 파트너십 계약을 통해 베트남에서 광림의 특장차와 크레인을 판매할 수 있는 전국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게 됨
- 특히 피코는 베트남의 군부대, 공안 및 정부와 긴밀한 관계가 형성돼 있어 이를 활용할 경우 광림의 매출증대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출처: Etoday.co.kr, 10.12

허창수 GS 회장 “베트남, 동남아 진출 교두보 최적지”...

중기 해외판로 지원도 당부

- GS 그룹은 허창수 GS 그룹 회장이 12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사장단회의를 열고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힘
- 사장단회의에는 허 회장을 비롯해 허승조 GS 리테일 부회장, 허진수 GS 칼텍스 부회장, 나완배 GS 에너지 부회장, 허명수 GS 건설 부회장, 허태수 GS 홈쇼핑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하영봉 GS E&R 사장, 이완경 GS 글로벌 사장, 정택근 ㈜GS 사장, 손영기 GS 파워 사장, 임병용 GS 건설 사장, 고춘석 GS EPS 대표 등 주요 계열사 CEO 들이 참석함

○ 이들은 GS 의 각 계열사가 해외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GS 그룹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 방안 등 해외사업 전략에 대해 논의함

○ GS 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지난 2011 년부터 매년 해외에서 사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이어 이번에는 베트남의 경제수도인 호치민을 찾음

○ 베트남과 동남아 시장의 현황 및 최근 트렌드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GS 가 펼치는 기존 사업 점검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임

○ 허 회장은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 및 인도를 연결하는 거대 경제권의 한복판에 있는 요충지로서, 우리가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로 삼기에 최적지”라며 “중국 등 해외시장에서 축적한 값진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남아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함

○ 이어 “국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할 때에도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과감한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며 “창의적인 방법으로 기존 자원들을 잘 조합해 해외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창조경제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말함

○ 특히 허 회장은 “GS 계열사들은 전남창조경제혁신 센터와 연계해 우수 벤처의 제품과 농수산식품 등의 해외판로 지원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우수한 중소기업 파트너들과의 동반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에서도 글로벌 청년 인재들을 양성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함

○ 이에 GS 사장단들은 동남아 시장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경제권 동향 및 한국 기업의 진출 사례와 시사점 등을 공유하고, GS 계열사들의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및 미래성장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함

○ 또 동남아 시장이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도 멀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유통, 건설을 주력으로 하는 GS 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함



- 이들은 S 홈쇼핑의 합작투자회사 'VGS SHOP 방송 스튜디오'와 GS 건설의 '호치민 메트로 1 호선' 건설현장 및 '자이 리버뷰 팰리스' 아파트 단지 등을 잇달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GS 계열사들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해 나가기로 함
- 한편 GS는 계열사별로 다양한 분야에서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해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GS 칼텍스는 빠르게 성장하는 동남아 시장을 글로벌 도약 거점으로 집중 공략하고자 싱가포르를 필두로 중국법인과 인도법인을 설립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 GS 에너지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캄보디아 유전 광구' 탐사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GS 리테일은 인도네시아에 슈퍼마켓 오픈을 준비 중이며, M&A 기회도 적극적으로 발굴하면서 조기 현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형점포 진입장벽이 완화된 베트남에서도 편의점 사업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음
- GS 글로벌은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 현지 법인, 베트남 지사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5 개국에 2 개의 현지 법인과 5 개의 해외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철강, 석유화학, 석탄, 시멘트 등 자원 및 상품 무역을 중심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출처: Etoday.co.kr, 10.13

서원인텍, 베트남 공장 생산비중↑ …재무구조도 '안정적' - 현대증권

- 현대증권은 14 일 서원인텍에 대해 성장을 거듭하는 고배당 스마트폰 부품사로 자리매김중이며 베트남 공장 생산비중 증가로 원가경쟁력 강화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음
- 차지운 현대증권 연구원은 “동사는 1983년 8월 설립된 스마트폰 부품 및 IT 관련 제품 생산 기업으로, 사업부문은 부자재 2014년 기준 매출비중: 53%), 키패드(21%), 악세서리(11%), 2차전지 보호회로(11%), 와이브로(4%)로 구성된다”며 “특히 베트남 하노이 공장의 생산비중 증가로 원가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힘
- 현대증권에 따르면, 서원인텍의 올 1분기 연결기준 베트남법인 매출 비중은 36%로 전년동기 대비 2배 이상 확대됨



○ 차 연구원은 “베트남 생산인력의 월 인건비는 국내의 7분의 1 수준으로, 2 분기부터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서원인택은 고품질의 제품을 단기간 개발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2015 년 기대 배당수익률이 13 일 증가 기준 4.5%에 달하는 등 재무구조도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 출처: Etoday.co.kr, 10.14

동부화재 PTI-신한은행, 베트남 방카사업 공동추진

○ 동부화재는 13 일 베트남 자회사 PTI 손보사 부이슈안투 사장과 신한은행 베트남 허영택 법인장이 호찌민 롯데레지던트호텔에서 방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

○ 이번 협약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과 한국 보험사가 인수한 현지 업체 간 최초의 방카 업무 사례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양사는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새로운 보험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더불어 은행 고객을 보험사에 단순히 소개만 하는 베트남 현지 방카 모델에서 벗어나 선진 한국형 방카슈랑스 시스템을 도입해 보험 계약 상담과 체결이 은행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양사는 이번 협약 체결로 자동차보험과 주택화재보험 판매를 시작하며 올해 안에 건강 및 상해보험을 판매할 예정임

○ 한편, 동부화재 자회사인 PTI 손보사는 1998 년 설립된 회사로 지난 5 년간 베트남 상위 손해보험사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4 년 기준 29 개 보험사 중 시장 점유율 5 위, 자동차 보험 시장 점유율 2 위를 각각 기록함

* 출처: Etoday.co.kr, 10.14

롯데마트, 베트남에 11호점 ‘컨터점’ 오픈

○ 롯데마트가 15 일 베트남 남부에 위치한 컨터시(Cần Thơ city)에 베트남 11 호점인 ‘컨터점’을 오픈함



대한상공회의소

- 께터시는 베트남의 5 개 직할시(하노이, 호찌민, 다낭, 하이퐁, 께터) 중 하나로 베트남 최대 곡창지대인 메콩강 삼각주에 위치하며, 인구는 120 만명 가량으로 향후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도시임
- 롯데마트 께터점은 께터시 머우 턴 거리(Mâu Thân St)에 지상 3 층, 매장 면적 1 만 1702 m²(약 3540 평) 규모로 들어서며 1 층은 임대 매장, 2 층은 식품, 비식품 셀프 쇼핑 매장, 3 층은 영화관으로 구성됨
- 1 층에는 롯데리아를 비롯해, 베트남 인기 비비큐 브랜드인 고기(Gogi), 현지 인기 비어클럽인 부부젤라(Vuvuzela) 등 레스토랑과 함께 께터시 최대 규모 키즈시설 및 의류 브랜드 매장이 함께 들어섬
- 2 층의 셀프 쇼핑 매장에는 300 여종의 다양한 인기 한국상품들을 별도 존(Zone)으로 구성하는 한편, 한국의 간편 먹거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델리카 코너도 마련함
- 3 층은 3D 상영관 1 개관을 포함, 총 4 개관의 롯데시네마가 644 석 규모로 들어서며, 점포 외곽에는 1100 여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도 별도 마련함
- 대규모의 쇼핑센터가 흔치 않은 베트남 소매 시장에서 롯데마트는 현지인들에게 쇼핑과 문화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번에 오픈한 롯데마트 께터점 역시 현지 유명 브랜드 매장을 집중 유치하고, 야외 상설 이벤트 무대 등을 마련해 지역 명소로 거듭날 계획임
- 롯데마트는 국내 유통업체 최초로 2008 년 12 월, 베트남 호찌민에 1 호점인 ‘남사이공점’을 오픈하며 첫 발을 내딛은 지 6 년 만인 지난해 말 10 호점까지 오픈하는 등 베트남에 성공적으로 정착함
- 실제 지난해 베트남 롯데마트의 매출은 2013 년보다 55.7% 늘어났으며, 올해 말까지 1 개점을 추가 오픈, 총 12 개의 매장을 운영할 계획임
- 이처럼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데는 쇼핑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현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점과 함께,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
- 롯데마트는 지난 2013 년 언어·문화 비정부기구인 ‘사단법인 비비비(BBB) 코리아’와 함께 베트남 중소도시인 후에(Hue)시에 한글 교육기관인 ‘후에 세종 학당’을 설립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현재까지 6 개 학기 동안 370 명이 한글 교육 과정을 수료했으며, 2017 년까지 1000 명 이상의 수료생을 배출할 것으로 전망됨

○ 김영균 롯데마트 동남아본부장은 “이번 오픈을 통해 남부 건너에서 북부의 수도 하노이까지 베트남의 주요 거점 유통망을 구축하게 됐다”며 “국내 유통업체 최초 베트남 진출이라는 타이틀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베트남 최고 유통업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함

* 출처: Etoday.co.kr, 10.15

금호아시아나그룹, 베트남 대학생 장학금·한국 유학기회 제공

○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하노이 국립대학교에서 ‘제 9 회 금호아시아나 장학증서 수여식’과 ‘제 4 회 금호아시아나배 베트남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16 일 밝혔

○ 이 날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총 100 명의 베트남 대학생들이 장학생으로 선발돼 학비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7 년 베트남 내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금호아시아나 베트남 장학문화재단’을 설립해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재단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일회성 지급이 아닌 대학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100 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200 명의 베트남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음

○ 베트남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올해로 4 번째 개최된 행사다. 금호아시아나는 지난달 중순부터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다낭, 후에 지역에서 예선을 거쳐 총 20 명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했다. 이들 전원에게는 1 주일 간의 한국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날 결선에서 대상, 금상, 은상 수상자 3 명에게는 각각 1 년, 6 개월, 3 개월간의 한국 유학기회와 함께 항공권, 기숙사비 등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경희대학교는 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할 예정임

○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베트남에 문화재단을 설립해 베트남 내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 장학 사업은 물론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같은 청소년 문화 교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

* 출처: Etoday.co.kr, 10.16



‘TPP 수혜’ 베트남서 날개 단 한세실업… 수출 다변화 전략도 '속도'

- 한세실업이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혜 날개를 달면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DM) 수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특히, TPP 수혜의 중심에 있는 베트남에서 매출과 이익률 향상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제 2의 베트남'으로 진출한 아이티 지역에도 집중하면서, 향후 수출 다변화 전략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임
- 한세실업은 지난 8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세실업, 한세에스 24 홀딩스, 에스 24 등 전 계열사의 합동 기업설명회(IR)를 열었음
- 이용백 한세실업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날 IR에서 “베트남은 한세의 주력생산지로, 최근 타결된 TPP를 통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여기에 생산기지 다변화 전략을 추진해 오는 2018년에 매출 20억 달러, 2023년에 매출 30억 달러를 달성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함
- 한세실업의 생산비중은 베트남이 약 60%로 해외 법인 중 가장 많다. 인도네시아, 중미 지역의 생산비중이 각각 20% 정도임을 감안하면 절대적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타결된 TPP는 베트남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예정이다. ODM 수출에 특화된 한세실업의 주요 바이어는 현재까지 미국에 집중돼 있어서임
- 이영주 한세실업 차장은 “아직 발효가 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향후 TPP가 정상 발효된다면 관세가 철폐되거나,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게 돼 한세실업에게 유리할 것”이라며 “베트남에서 봉제 인프라와 수직계열화가 완성되고, TPP 발효까지 더해진다면 더 높은 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설명함
- 한세실업은 지난해 11억 7000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다. 올해는 13억 달러를 기록했고, 내년엔 14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생산기반이 중국에서 벗어나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중남미 등으로 확대되면서 경쟁력을 확보한 영향이 큼
- 현재 한세실업은 베트남에 총 4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2001년 첫 법인 설립 이후 한세 TN, 한세 TG 등 3개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2013년엔 염색공장인 C&T 비나 법인까지 늘렸다. 원단을 짜고, 직접 봉제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를 위해 편직물 공급을 위한 편직단지도 조성함



-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TPP 원산지 규정도 한세실업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다. 아직까지 한세실업은 베트남 역내 원부자재 공급률이 50~55%대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 비중을 더욱 늘려가겠다는 계획임
- 베트남에서의 TPP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한세실업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베트남에 몰린 생산 비중을 분산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성장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한세실업은 최근 미국과 거래시 무관세 혜택이 있는 아이티에 진출해 현지의 최대 섬유단지와 MOU 를 체결함
- 1 차로 5000 여명 규모의 공장을 설립해 내년 하반기부터 생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아이티를 '제 2 의 베트남'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임
- 이 부회장은 “베트남에서 TPP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최근 아이티에 생산기지 설립을 진행하는 것도 향후 한세의 생산기지 다변화 전략에 탄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이티는 분명 한세의 '제 2 의 창업', '도약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함
- 이어 “1 차로는 5000 명 규모이지만, 향후 2 만~3 만명 규모까지 키우고 싶다”며 “한세실업이 그동안 중미, 베트남 등을 지나면서 큰 도약을 이뤘는데, 아이티가 '포스트 도약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임

* 출처: Etoday.co.kr, 10.11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미국 기업, 베트남 섬유 산업에 원사 공급 희망

- 호치민시에서 10 월 5 일 열린 베트남 섬유 산업 기업 박람회에 참가한 미국 원부자재-원사 생산 기업들은 베트남 섬유 기업에 원사 공급을 희망함
- Frontier 회사 대표는 회사가 1996 년에 설립되어 미국에서는 신생 기업이지만 현재까지 5 개의 원사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 주일에 약 1 천 만 톤의 원사를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현재 미 대륙과 유럽 대륙 시장 여러 곳에서 넓은 수출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 미국의 많은 기업 대표들은 베트남 섬유 산업 활동에서 원사 사용 잠재 수요가 매우 큰 시장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미국 면화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봉제 상품은 베트남의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산업의 수출 총액은 무역 협정이 효력이 발생하면 향후 강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현재까지 베트남은 여전히 원사 생산 공장이 많지 않다. 현재 섬유 기업이 생산하는 대부분의 원료는 중국과 인도 등 외국에서 수입한 것임
- 이중 미국의 원사 상품은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으며 특히 베트남이 현재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협상하고 있어 이점이 있음
- 미국의 코튼협회 대표는 향후 미국의 원사 생산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또한 TPP 의 이점을 선점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전략으로 보여짐

* 출처: Vietnam-Korea Times, 10.13

베트남 기본급, 외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과 큰 차이

- 미국 컨설팅 업체 마사 및 현지 텔런트넷의 조사에 의하면 베트남에서 외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과의 기본급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 일 베트남·뉴스(VNS)가 보도함
- 텔런트넷의 호아 응웬씨에 따르면 외국 기업 및 현지 기업의 기본급에서는 인력에서 25%, 전문직에서 40%, 관리직, 임원 수준에서 53~62% 외국계 기업이 높음
- 다만 상여 금액은 현지 기업이 외국계 기업보다 높은 경향에 있는 것으로 급여의 차이는 상당히 좁혀짐
- 또 현지 기업 중에는 인재를 모으기 때문에 스톡 옵션(주식 매입 선택권)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음
- 한편 2014 년에 비해서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부터 2015 년 기업의 임금 상승률은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균 임금 상승률은 외국계 중 9.4%, 현지 기업은 9.7%임



- 산업별로는 화학 생명 과학 제조의 임금 상승률이 10.1~10.3%로 높다. 이러한 산업 부문은 경기 침체의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함
 - 이에 반해 사업 상황 악화로 석유 광업의 임금 상승률은 6.2%, 서비스업은 6.7%, 금융(금융권)은 8.9%로 낮은 수준에 그침
- * 출처: Vinahanin.com, 10.11

베트남 유럽의 신발 수출 세계 제3위로 부상

- 베트남 가죽·신발·핸드백 제조자 협회(LEFASO)에 따르면 베트남의 2014 년 유럽(EU)용 신발 수출이 세계 제 3 위에 올랐다. 중국과 이탈리아 다음으로 수출 총액은 48 억 8000 만달러에 달함
 - 베트남에서 지난해 신발 수출은 2013 년과 비교해서 20.5%증가하면서 수출 총액도 2010 년 이후 최대임
 - 주요 수입 시장은 프랑스, 독일, 벨기에, 영국, 스페인 등. 특히 프랑스는 수출 금액이 가장 많은 총 8 억 3000 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유럽 전체 수출의 16.82%를 차지한다고 함
 - 2015 년이나 신발 수출은 순조롭게 추이하고 있고 베트남 세관 총국에 따르면 상반기에만 유럽의 신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 늘어 20 억달러에 이르렀음
- * 출처: Vinahanin.com, 10.11

◆ 베트남기업 동향

베트남 비엔 호아에 수입 목재 유통 센터 오픈, 국내 최초

- Tan Vinh Cuu 사(Tavico)는 10 월 9 일 Dong Nai 성 Bien Hoa 시에 수입 목재 유통 센터를 오픈했다. 베트남에서 최대이며 처음으로 전문적인 재목 유통 시설이 됨
- 면적 15 만 8,000 m², 통나무 도매 시장, 판매점, 보세 창고, 고객 서비스 지역이 포함된다. 유럽, 캐나다, 일본, 호주, 러시아 등에서 수입한 각종 경제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통나무로 년 7 만 2,000 m³, 각목으로 7 만 5,000 m³을 국내 아시아 시장에 공급함

○ 그 외에도 원료의 사용 방법의 조언과 목재 가공, 공사 현장에 원료 공급 및 상품 수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 출처: Vinahanin.com, 10.15

국영 기업의 주식 회사화, 올해 대상 기업 289곳 중 불과 94개뿐

○ 베트남 재정성에 따르면 올해 주식 회사화가 예정된 국영 기업 289 곳 중 이미 주식 회사화된 기업은 9 월 말 시점에서 불과 94 개였다고 함

○ 국영 기업의 주식 회사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 원인으로 ◇ 투자가가 주식 회사화 과정에서의 정보 공개의 투명성과 정확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 ◇ 대상 기업의 경영진이 자신의 포지션을 지키려고 주식 회사화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것 등이 꼽힘

○ 정부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주식 회사화를 통하여 국영 기업에서 4 조 5000 억 VND 의 출자를 회수했다.연말까지 나머지 195 개 주식 회사화하고 18 조 VND 을 회수할 필요가 있지만 연내의 계획 달성은 어려울 수도 있음

* 출처: Vinahanin.com, 10.15

가죽 신발 기업 수출 증가

○ 상공부는 2015 년 상반기 9 개월 간 가죽 신발 생산량이 2 억 4190 만 켈레에 달해, 2014 년 동기 대비 24.1% 증가했다고 밝혔다. 각종 신발 수출 총액은 88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동기 대비 18.4% 증가한 것임

○ 베트남 가방 및 가죽 신발 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산한 결과 이 분야의 많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수출 주문을 받았다고 밝힘

○ 이는 베트남이 많은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한 이점 덕분이며, 현재 새로운 생산 시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임

○ 몇몇 기업들은 몇 백 만 달러의 대규모 물량 수출 주문을 체결했고 2016 년 1 분기까지 생산까지도 충분한 상황임



대한상공회의소

- 이 때문에 가죽 신발 생산량 계획 목표가 2억 8020만 켈레에 달하고 2015년 전체 수출은 140-150억 달러에 이르는 등 만족스러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16년 신발 산업의 각종 신발 생산 목표는 3억 1,400 켈레, 수출 총액은 160-170억 달러로 예상된다. 현지화는 60% - 65%에 달하도록 노력할 것임
- 상공부는 또 가죽 신발 산업 기업들에게 수출에 주력하는 것 외에도 국내 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함
- 특히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과 전문적인 유통 시스템을 갖춰 제품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소비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함
- 현재 신발은 EU와 미국 시장에 수출되고 있다. 이 시장 모두 높은 기술 수준과 품질을 요구한다. 이 때문에 베트남의 가죽 신발 기업들은 계속해서 강력한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 향상을 이뤄내야 함
-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생산 원료 공급 기업과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시장 혁신과 무역 촉진, 무역 협정을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이 필요함

* 출처: Vietnam-Korea Times, 10.13

Vietcombank 중소기업을 위한 단기 대출 우대 금리 연 5.5%

- 다가올 2016년 새해에 기업과 고객의 단기 자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2월 22일까지 베트남 상공은행(Vietcombank)은 중소기업을 위한 경쟁력 있는 금리의 단기 자본 대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 단기 대출 수요가 있는 기업들은 최저 금리 연 5.5%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3개월 이상 6개월 대출에 대해서는 연 5.9% 금리가 적용됨
- 이 프로그램을 통한 우대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규모 조건을 충족 및 대출 목적(생산 서비스, 제조와 설날 상품 경영 : 식품, 음식, 음료수, 소비재) 외에도 기업은 좋은 신용 기록과 건전한 재정 능력, Vietcombank 채무를 이행할 충분한 지불 보장이 필요함
- 위의 우대 대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Vietcombank가 중소기업과 동행한다는 경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자금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생산 경영을 돕기 위한 것임



* 출처: Vietnam-Korea Times, 10.13

베트남 투자 개발 은행(BIDV) 봉제 기업들에 20억 달러 대출 약속

- 베트남 투자 개발 은행(BIDV)의 Tran Bac Ha 의장은 9월 30일 열린 워크숍에서 동행은 향후 5년 동안 봉제 업체들에 20억달러의 대출을 하겠다고 밝혔
- 중국이 인건비 상승과 땅값 폭등에 수출용 생산을 축소하는 상황에 따라 해외 투자자들에게 베트남이 생산 기지가 될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고 Ha 의장은 말함
- 이 기회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시장 통합을 이루려면 베트남의 산업계의 재편이 요구 된다고 Ha 의장은 말함
- 투자 개발 은행 대출은 원자재 개발, 무역 촉진, 시장 확대에 특화된 것이 될 예정. 상공성 경공업부의 Phan Chi Dung 부장은 양자 및 다자 간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로 베트남은 봉제 제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 EU, 일본, 한국을 포함 세계 메이저 시장에 보다 유리한 접근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함
- Dung 부장은 자유 무역 협정에 따른 관세 삭감은 베트남의 수출 산업에 있어 순풍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상공성의 Do Hai Thang 차관에 따르면 봉제 산업은 자유 무역 협정 체결에 따른 가장 큰 이익이 기대되는 산업 중 하나임
- 그러나 이 기회를 살리려면 아직 큰 장애가 남아 있다고 Thang 차관은 말하고 있다. 원산지 증명과 수입국 측의 규제에 대한 적합성, 그리고 대다수가 중소 기업인 봉제 섬유 산업에서는 자본 조달도 문제임
- 베트남은 세계에서 10위 이내에 드는 봉제 섬유 제품의 수출국이며, 과거 5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15%를 기록하고 있음. 2014년 베트남에서 봉제 섬유 제품 수출액은 209억 미 달러에 달함

* 출처: Vinahanin.com, 10.10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베트남 대기 오염 방지 계획 방안 수립, 천연 자원 환경성

- 베트남 천연 자원, 환경성은 대기 오염 배출원의 관리나 대기 개선 등으로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대기 오염 방지 계획 방안을 마련했다. 계획안은 "대기 관리에 관한 국가 행동 계획 방안"이라고 국영 베트남 통신(VNA)이 5일 보도함
- 이 방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시멘트와 전력, 화학, 비료, 정유 생산 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황(SO2)나 질소 산화물(NOx), 먼지 등을 20% 삭감함
- 특히 배출량이 많은 생산 시설에 대해서는 20년까지 모니터링 장치를 도입함. 자동차 등 차량이나 다른 생산 시설 등의 배출량은 10% 줄임
- 감소 달성을 위해서는 법 정비나 대기 관리에 관한 기술적 가이드 라인, 대기 관리 조직 등을 창설하고 배출량 억제와 예방적 조치 도입을 도모함
- 또 재정적 조치와 더불어 과학 기술이나 검사, 오염 방지 등 국제적 협력 강화도 추진함

* 출처: Vinahanin.com, 10.11

빈중 성 환상 도로 일부 개통, 호치민과 연결

- 베트남 동남부 빈중 성 미푹 ~ 탄반(My Phước - Tân Vạn) 간 도로 일부 구간 (제 1기)이 13일 개통함
- 개통 구간은 동성의 지방도로 741 호선(ĐT 741)에서 안푸(An Phú) 6차로까지 길이 16km의 6차선 도로로 이것은 호치민시 외곽 순환 도로 3호선 건설 안건의 일부임
- 이 도로의 개통으로 호치민시와 남 중부 고원 지방이 연결되어 국도 13호선의 정체 완화로 이어진다. 또 동남부 바리아 붕따우항과 동남부 동나이 성에서 건설이 계획된 롱탄 국제 공항 등을 잇는 물류 루트가 되어 이동 시간도 단축됨
- My Phước - Tân Vạn 간 순환 도로 길이는 62km 전 구간이 개통되면 동성의 국도 1A 호선까지 연결되어 각지의 공단을 통과하는 도로임



○ 투자 총액은 4 조 3000 억 VND, 투자 주체는 빈증 투자 공업 개발 총공사(BECAMEX IDC). 제 2 기에서는 국도 1A 호선과 국도 1K 호선 호치민 도로를 잇는 길이 약 10km 구간을 착공할 전망이다

○ 또한, 빈증 성은 이날 성 지방도로 743 호선 확장 안건을 착공했다. 동성은 Mỹ Phước - Tân Vạn 간 순환 도로에 접속 하는 전장 12.3km 의 6 차선 도로에서 동성의 베트남 싱가포르 공단(VSIP), 송탄 공단 등을 통과한다.투자 총액은 1 조 3290 억 VND 임

* 출처: Vinahanin.com, 10.16

베트남 일부 국유 기업은 TPP대상에서 제외 석탄, 원유 수출세 유지

○ 대략 합의에 이른 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 관한 베트남 정부는 일부 국유 기업을 대상 외로 함과 동시에 국가 재정의 관점에서 원유 및 석유 수출세 유지에 관해서 협상했다고 협상 책임자인 산업 무역 차관이 9 일 밝힘

○ 베트남은 TPP 의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리는 나라로 특히 원가 경쟁력 있는 제조업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TPP 협상 내용 명세를 밝히지 않음

○ 차관에 따르면 안보 분야에서는 국유 기업을 제외하는 것이 가능해 대상 이외의 기업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함

○ 또 석탄, 원유 및 일부 광석의 수출세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의 면세 조치 협상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의 지난해 원유 수출 수입은 72 억달러, 석탄은 5 억 5450 만달러임

○ TPP 가 발효되면 섬유 신발 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나이키, 아디다스<ADSGn.DE>, H&M<HMb.ST>등의 명품 브랜드 수출이 310 억달러임

* 출처: Vinahanin.com, 10.15

2014년 두유 소비량, 베트남 세계 제3위

○ 식품용 종이 용기의 개발·제조를 다루는 스웨덴의 테트라 팩사(Tetra Pak)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 년의 베트남의 두유 소비량은 연간 6 억 1300 만 리터에 달하고



이는 세계 3 위이다. 다만, 노상 등에서 판매되는 수제 두유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함

○ 두유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국내의 종이 팩 두유 업체들은 수요 전체의 약 32% 밖에 미치지 않는 실정이다. 이 숫자로부터 보면 종이 팩 두유 시장 개척 여지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되어 각 업체들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장 건설 투자와, 원료인 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콩 연구 센터의 개설에 주력하고 있음

○ 시장 조사 회사 닐슨·베트남(Nielsen Vietnam)에 따르면 Quang Ngai Sugar Joint Stock Company (QNS) 산하의 베트남 두유사(Vinasoy)는 현재, 두유 시장 점유율 82.7%를 차지하고 있어 동사의 2014 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49% 늘어난 3 조 1420 억 VND 임

○ 이 회사는 올해 초, 홍강 삼각주 지방 박닌 성에 있는 두유 생산 공장(제 2 기)을 준공했고 연말에도 3 번째의 두유 생산 공장을 동남부 빈중 성에서 착공할 예정임

○ 시장 점유율의 나머지 18%는 현지 유제품 제조 업체 비나밀크(Vinamilk)나 현지 대형 음료 업체인 Tan Hiep Phat, 치베코 음료(Tribeco)등이 차지하고 있음

○ 또 황안 잘라이(HAGL)은 최근 Nutifood 및 남부 농업 과학 기술 연구소 간에 두유 생산용 원료 개발 안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

○ 이로써 이 연구소는 재배지의 토양에 적합한 콩을 개발·선정하고 HAGL 는 약 1000ha 의 농지에서 콩을 재배하고 Nutifood 는 HAGL 가 재배된 콩을 일괄 매입하고 두유를 생산할 계획임

* 출처: Vinahanin.com, 10.14

TPP 실현은 최소 1년 반~2년 후, 베트남은 가장 유연한 조건

○ 10 월 9 일 열린 환 태평양 파트너십(TPP)협정을 소개하는 기자 회견에서 상공성은 월내 TPP 에 대해서 공표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이 협정 타결로 승인되는 데 1 년 반에서 2 년이 걸린다고 함

○ 기자 회견에서 베트남의 협상 단장을 지낸 Tran Quoc Khanh 상공 차관은 TPP 의 공통 원칙은 모든 수입 세율을 0%로 하고 일부 민감한 품목은 예외이지만, 가맹 각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함



- 그 때문에 섬유 제품이나 신발 등이 수출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한편 돼지 고기, 닭고기 등 일부 축산품은 이 분야에 강한 회원 각국으로부터 큰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유, 콩, 옥수수, 축산 사료 등이 어려움에 직면 하지만 이미 베트남은 이들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어 진통의 정도는 다소 가벼워짐
- 반면 Khanh 씨는 베트남은 TPP 의 약속 실행 측면에서 가장 유연한 조건이 주어지고 있으며, 높은 기준을 실행하는 능력을 구축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장기적인 약속 실행의 로드맵이 인정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일부 국가는 TPP 의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기술적 지원 약속도 하고 있음
- 또 Khanh 씨에 따르면 TPP 참가국들은 타국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과도한 보조를 국영 기업들에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고 계속 보조할 수 있지만, 일정 범위 내에 한한다. 마찬가지로 어업에 대해서도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음
- 이 론적으로는 수입 관세가 내려가면 상품 가격은 낮아지지만 실제 가격은 다양한 요소에 의거 수입 관세가 낮아졌다고 해도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추어 내국세를 변경하거나 유지할 권리가 주어졌으며 각국의 국회에서 내국세의 증세가 승인되면 TPP 는 이에 간섭할 수 없어 TPP 가 발효돼도 상품이 싸게 된다는 법은 없음

* 출처: Vinahanin.com, 10.13

TPP의 비준 절차 베트남은 빨라도 2016년 6월 국회에서

-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협상이 최근 합의에 이르렀다. 지금부터 협정 문서가 작성되어 내년 1 월 이후에 참여국 정부가 서명하고 각국 의회 비준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절차의 형식은 각국마다 다르다. 베트남에서의 비준 절차는 빨라도 내년 6 월에 열리는 국회가 될 것 같음
- 미국에서는 정부가 협정에 서명한 90 일 전까지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서명은 내년 1 월 이후 의회의 심의에 들어가 그 후가 될 전망이다
- 베트남에서는 국제 조약 체결·가입·실시 법에 따라 TPP 의 비준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조약에 서명한 뒤 국가 주석에 비준을 신청함
- 국가 주석은 정부로부터 신청을 수리하고 15 일 이내에 비준의 결정을 하거나 국회가 개최된 적어도 30 일 전까지 국회에 상정하고 승인을 요구해야 함



* 출처: Vinhanin.com, 10.13

수유 중 여성 근로자에 하루 60분 휴식 시간 제공 새 시행령

- 베트남 정부는 노동법에서 여성 노동자 관련 제도의 상세를 규정하는 시행령 제 85 호/2015/ND-CP 를 공포했다. 이는 11 월 15 일부로 시행됨
- 이로써 12 개월 미만의 유아를 양육하는 여성 근로자는 아동의 수유, 모유 착유·보관, 휴식에 근무 시간 중 하루 60 분 휴식을 취할 수 있음
- 월경 기간 중인 여성도 1 개월에 최저 3 회, 근무 시간 중에 하루 30 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휴식 시간대에 대해서는 여성 근로자 및 고용자가 면담 후 결정한다. 어느 휴게 시간도, 노동 계약에 근거한 충분한 급료가 지급됨
- 또 고용자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플렉스 타임(자유시간)이나 자택 근무 등의 제도를 적용한다. 이 밖에 정부는 사무실 내에 깨끗한 욕실과 화장실, 수유실·착유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대량의 여성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여성 근로자 관련 제도의 실시에 해당하는 고용자가 부담한 지출은 손금 산입이 가능하고 기업 소득에서 공제됨

* 출처: Vinahanin.com, 10.10

무역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 베트남은 2015 년 수출액 목표치인 1650 억 달러(USD)를 달성하기 위해 4 사분기의 수출액이 450 억 달러(한 달의 수출액이 150 억)에 도달해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
- 상공부는 베트남의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수출확대의 과제를 풀어야 함
- ▲ **무역적자 증가 추세 보이고 있어**
- 상공부는 베트남의 경제 회복에 따라 금년 연말까지 수입량 증가로 인한 무역적자가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측함



-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지난 9개월간 베트남의 수출입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4사분기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의한 무역적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통계총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베트남은 지난 9개월 무역적자가 39억 달러(수출총액의 3.2% 정도)로 집계됐다. 그 중 국내 기업들의 수입 초과 액수는 158억 달러로 전년 동기(2014년 동기의 수입 초과액이 41억 달러)대비 증가함
-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화물에 의한 수입 초과액수는 243억 달러에 달하여 2014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한 것임
- 경제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무역적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쌀, 커피 등과 같은 베트남의 주력 수출 품목의 수량과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되어 농산물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함
- 구체적으로 9개월의 커피 수출은 수량 961,000톤, 금액 19억 6천만 달러에 달하여 수량과 액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2%, 32.2% 감소함
- 9개월간 쌀 수출의 수량과 액수는 2014년 동기 대비 각각 10.1%, 15.7% 감소함. 금년 상반기 8개월의 쌀 수출 가격은 1톤당 430.87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8% 감소함
- 또 베트남의 원유 수출은 세계 유가 하락으로 인해 수출량이 증가했지만, 액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높은 수출 성장률을 기록한 품목도 있다. 예를 들면, 섬유 및 의류 제품 수출은 171억 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함
- 그 외에도 높은 수출 성장률을 기록한 품목은 가죽 신발(수출액 88억 달러 달성,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 목재 및 목재 제품(금액 49억 달러, 9.1% 증가), 핸드폰 및 부품(금액 232억 달러, 34% 증가), 컴퓨터 및 전자부품(금액 114억 달러, 52% 증가) 등임
- 이로 인해 지난 9개월간 베트남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증가함. 한편 베트남은 경제 개발을 위해 인프라 구축용 기계 설비, 생산 및 소비용 원자재 등을 수입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지난 9개월간 베트남의 생산용 기자재 수입액은 1135억 달러로 전체 수입 금액의 91.1% 수준이고,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함



○ 또한 무역적자의 원인 중 하나는 여러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및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기업들의 생산 확대를 위해 기계, 설비, 자재들의 수입량이 늘어난 것임

▲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

○ 전문가들은 수출 성장률 증가를 위해 각 정부부처와 관계기관들이 농림수산 수출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출시장 확대 방안을 강구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함

○ 동시에 수입통제 조치, 특히 불필요한 제품에 대한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밀수 방지, 위조제품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생산을 장려해야 함

○ 베트남은 장기적으로 부품소재 산업 개발을 통해서 섬유 의류, 가죽 신발, 기계 설비 등과 같은 주력 제품 생산을 위해 원자재 조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함

○ 한편, 베트남은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및 기타 여러 국가들로부터 기계 설비를 수입할 수 있음

○ 특히 베트남과 체결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여러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상공부는 수입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수입대체품의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또, 현재 상공부에서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 상품을 사용한다’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 상공부는 위에 언급한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무역적자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출처: Vietnam-Korea Times, 10.13

VAMC(베트남 자산관리공사) 9개월간 부실채권 91조 동 매입

○ 베트남 자산관리공사(VAMC)의 응웬꾸억흥(Nguyễn Quốc Hùng)경영회의 의장에 따르면 VAMC 는 연초부터 9 월 30 일까지 91 조 3140 억 동(VND)의 부실 채권을 82 조 1550 억 동의 가격으로 매입함



- 이에 따라 베트남 자산관리공사는 금년도 부실채권 매입 80 조 동(회계장부 가격)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함
 - 또 지난 9 개월간 VAMC 의 부실채권 회수, 부채매각과 담보자산 매각의 실적은 9 조 8270 억 동에 달해 2014 년 대비 2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 년부터 현재까지 VAMC 의 총 부실채권 회수금액은 14 조 8470 억 동에 달함
 - 이와 관련 베트남 자산관리공사의 응웬꾸억흥 의장은 “그 동안 VAMC 는 부실채권 정리과정에 있어 금융기관들과의 협조도 긴밀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고 말함
 - 응웬꾸억흥 의장은 이어 “VAMC 에서 오는 10 월말까지 2015 년도 부실채권 회수 10 조 동의 목표치는 초과 달성이 가능하다” 라고 밝힘
 - 현재까지 베트남 자산관리공사(VAMC)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224 조 8690 억 동(회계장부 가격)의 부실채권을 매입함
- * 출처: Vietnam-Korea Times, 10.13

하노이 부동산 가격 계속 오를 듯

- JLL Vietnam 사의 발표에 의하면 2015 년 3 분기에 분양된 하노이 시장의 아파트 수는 지난 분기에 비해 16% 증가한 7,500 호이며 그 중 70% 가까운 아파트들이 분양가가 1.000USD/m²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하이바쑹(Hai Bà Trung)군과 황마이(Hoàng Mai)군에서만 3,500 호 이상이 분양되며 분양률이 가장 높았고, 분양된 아파트 중 11%만이 완공된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됨
- JLL 사의 기록에 따르면, 2015 년 3 분기에도 부동산 매매가격은 최근 시행했던 각종 적극적인 시장환경 개선의 노력과 함께 계속해서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군 별로 가격 인상률은 지난 분기에 비해 3-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그 중 저급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체 공급원의 80% 이상의 가격이 최대 9% 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남
- 2015 년 3 분기 통계에 따르면, 하노이 아파트 시장이 여러 분양가 2000 만 동 이상의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들로 인해 공급이 급증함



- 부동산 프로젝트 시장 시스템(STDA)은 지난 9 월 13 일 분양가 2450 만 동/m2 이상의 골드마크 시티(Goldmark City) 분양식을 주최함
 - 리엔민(Liên Minh)G5 또한 지난 9 월 26 일 분양가 23 억동 이상의 임페리아 가든(Imperia Garden)아파트의 분양식을 주최했다. 그 외에도 빈홈즈 타임시티(Vinhomes Times City), 드 라 로이 솔레이(D'. Le Roi Soleil)등의 고급형 아파트가 지난 3 분기에 분양을 시작함
 - JLL 사는 9.000 호 이상의 아파트가 2015 년 4 분기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며, 그 중 90% 가까이가 이미 분양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2015 년 4 분기에도 공급량이 높게 유지될 것이며 중급 부동산이 시장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예상함
 - 신용도 높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품질 높은 부동산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도도 높아져 많은 소비자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JLL 사는 부동산 가격 인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함
- * 출처: Vietnam-Korea Times, 10.13

꽝닌 성 산업단지, 경제구 기업 투자유치 촉진

- 투자자들은 10 월 10 일부터 꽝닌(Quảng Ninh)성의 산업단지, 경제구에 투자 진출할 때 여러 가지 투자 우대혜택을 적용 받게 됨
- 꽝닌(Quảng Ninh)성 인민위원회가 발표한 산업단지, 경제구 기업투자 유치에 대한 새로운 정책은 투자자들의 꽝닌 성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및 산업단지, 경제구에 투자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것임
- 구체적으로 산업단지 인프라 투자자는 토지임대료 혜택(토지임대료를 토지가격의 0.5%만 내도록 하는 것)을 받을 수 있고, 토지보상 철거비용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폐수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의 30%를 지원(최대 300 억 VND)받을 수 있음
- 또 100ha 이상의 면적을 사용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 근로자용 아파트, 전문가용 주택 등을 위해 토지를 부여 받을 수 있음
- 이외에도 투자자들은 산업단지, 경제구에 투자 진출할 때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술이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대한상공회의소

- 또 투자자는 팡닌 성의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해 제품광고 시 광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동시에 투자자는 국내외 박람회이나 무역포럼에 참여할 때 전시부스 임대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거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현재 팡닌 성에서 우선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는 산업단지 및 경제구 내의 도로, 인프라 연결, 물 전기 공급 시스템, 하수 처리 시스템, 고형폐기물 처리 시스템, 폐수처리 시스템, 직업훈련 시설, 의료보건 시설 등임
- * 출처: Vietnam-Korea Times, 10.13



III. 베트남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 프로젝트

List of projects calling for investment in Thai Nguyen Province

I. Service and tourism sector:

1. Investment projects in waterway system, dock, Nui Coc Lake bathing beach
2. Construction of hanging cable system across Nui Coc Lake
3. Construction of Horse Racing Course in Tan Cuong (Thai Nguyen)
4. Construction of Resort at Cold Stream Lake in Pho Yen commune
5. Construction of Resort at Phuong Hoang cave – Mo Ga stream resort
6. Construction of a 7-storey waterfall resort in Khuan Tat – Dinh Hoa.
7. Construction of service-trade centre of Thai Nguyen
8. Improvement and upgrading of Thai Nguyen market

II. Sector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ood processing

1. Project of fruit processing and preservation
2. Project of reforestation and high value forest product processing
3. Project of growing, processing bamboo shoot for export
4. Projects of growing, breeding mulberry and processing silkworm
5. The project of upgrading fish hatcheries of Hoa Son-Phu Binh
6. Project of processing chicken for exporting
7. The project for building plant of the cattle and poultry processing

III. Industrial sector

1. Manufacturing fabricated steel and alloy steel
2. Constructing plant for steel plate and steel strip manufacturing



3. Project for automobile spare-part manufacture
4. Project for automobile plastic details manufacture
5. diesel engine types manufacture
6. Project for bearings Production
7. Project for electric equipment Production
8. Project for textile mechanism equipment production
9. Project for machinery, agricultural equipment production
10. Project for hydro machine production
11. Project for image tube and computer monitor production
12. Project for computer component production
13. Project of production eco roofing from organic fibers
14. Project for cotton, fiberglass, alkali-resistant roofing production
15. Annealing color industry
16. Production of kaolin
17. Mining and production of paving stones
18. Production of cement packaging paper
19. Production of high-quality beer
20. Manufacture of Interior furniture
21. Sport shoes manufacture for export
22. Textile products for export

IV. Construction project

1. Project for Song Cong 2 IZ investment and development
2. Project for sewage treatment system in Song cong 2 IZ
3. Project for construction of hostels for workers



대한상공회의소

4. Project for construction of offices for lease
5. Project for small IZ South Pho Yen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6. Project for small IZ Son Cam (Phu Luong district) development and construction